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 만들기 주력할 터”

제1기 광주 서구 혁신 어벤져스 출범

실무자급 2030 공무원 중심 지자체 혁신 모임 운영 불합리한 공직 관행 개선·합리적 업무방식 제시 나서

“혁신 어벤져스의 젊은 단원들이 자유로움과 창의력을 통해 조직 내 다양한 행정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과 효율적인 업무 방식 발굴을 위해 젊은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목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 서구 혁신 어벤져스.

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구 혁신 어벤져스’는 7급 이하의 실무자급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혁신 모임이다.

최근 공직사회 내 MZ세대가 증가하는 등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조직문화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구는 행정혁신의 장애요소인 관행을 타파하고 구성원 간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희망자를 신청받았다.

그 결과,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14명의 젊은 공무원들로 이뤄진 ‘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됐다.

이들은 조직사회 내에서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행정혁신을 시도한다.

혁신 어벤져스에서 단장을 맡은 박진영 주무관은 “최근 들어 신규 임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20~30대 공직자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직사회 내에서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이다.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격적이고 기존의 틀을 바꾸는 의미의 혁신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서 선배들과 후배들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며 “잠시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조직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조직 내 좋은 업무 문화가 있다면 타 지자체는 물론 사기업까지도 벤치마킹해 일하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활동지원을 맡은 이승훈 담당 주무관은 “행정 안전부에서 처음 시작된 ‘혁신사업’을 벤치마킹해 서구에서도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



왼쪽부터 ‘혁신 어벤져스’ 이승훈 담당 주무관, 박진영 단장.

다”며 “오는 11월 예정된 정부 혁신 박람회부터 타 기관 사례 벤치마킹, 성과 공유까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히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앞으로 혁신 워크숍, 타기관 사례 벤치마킹 등 혁신 과제 연구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계

획하고 있다.

발굴된 구성 혁신 방안과 성과들은 보고회 개최와 관련 부서 검토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카드 뉴스와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돼 공유될 예정이다.

앞으로 ‘혁신 어벤져스’는 월별 정기모임, 역량 강화 교육, 혁신 사례 발굴 및 개선 방안 논의 등을 통해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해 구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최명진 기자



진도경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진도경찰서는 4일 “진남 진도초등학교 등 곳곳에서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등교 확대로 대면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어깨띠 및 ‘학교폭력 STOP’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 예방을 홍보했다.

김신조 진도경찰서장은 “학교폭력은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북부경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교육

광주 북부경찰서(서장 정재운) 교통안전계는 지난 1일 북구 학동마을 등 자연부락을 방문, 유동성 많은 가을 추수철을 맞아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김동수 기자



완도경찰·군·의회, 범죄예방 치안설명회

완도경찰서는 최근 완도군청을 찾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변화와 범죄예방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시연회를 통해 완도지역 범죄 취약지를 완도군·군의회와 공유했다.

완도경찰은 올해 주요범죄 예방 추진책 및 방법론 CCTV설치, 도서 인프라 및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등 환경개선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과 군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설명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변화와 범죄예방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시연회를 통해 완도지역 범죄 취약지를 완도군·군의회와 공유했다.

결론

- 박민철·김정희씨 장남 희환군, 김순경·이명희씨 장녀 인아양=10일(일) 낮 12시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 서울시 중구 을지로(소공동) 30, 010-3572-6806.
- 김용주(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김옥주씨 아들 한철군, 이용기·홍영란씨 딸 해숙양=9일(토) 낮 12시 부산수영구 광안해변로 호텔 아쿠아펠리스 3층.
- 최종국·정순영(전 광주 북구의원)씨 아들 영철군, 이한선·임정희씨 딸 지혜양=10일(일) 오후 1시30분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 김중만(광주일보 문화사업본부장)·민경희씨 아들 민준, 문선주(광주시산림조합 전 비상임이사)·김찬심씨 딸 은하양=16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서구 죽봉대로 웨딩그룹 위더스 3층 펠리체홀.

부음

- 김홍수씨 별세, 안중철(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장) 장모상=발인 5일(화) 오전 8시20분 광주 VIP장례타운 501호(062-521-4444).



서해해경-익산시-해양안전협 ‘안전문화 확산’ 협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익산시(시장 정현을), (해안국해양안전협회(회장 박명호)와 손을 맞잡았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정현을 익산시 시장, 박명호 한국해양안전협회장은 최근 익산시청에서 안전한 관광도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장려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위해 민·관·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수면·연안 레저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교육 활동을 비롯해 ▲수상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운동 홍보 ▲내수면 및 연안 재난사고 구조·수습 활동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영진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 “레저 활동 시 방역수칙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중앙신협, 담양읍에 사랑의 쌀 전달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은 최근 가정위탁가정 및 조손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10kg 쌀 17포대를 담양읍사무소에 기탁했다.

사랑의 쌀은 광주중앙신협 서방지점 신축에 따른 화환을 대신 받은 것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지점이 있는 담양지점(지점장 박석훈) 등 3개소에 나눠 전달됐다.

김민희 이사장은 “서방지점 신축을 계기로 나

눔 실천하게 됐다”며 “조합원 뿐 아니라 담양읍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원 담양읍장은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도움을 준 광주중앙신협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담양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해남경찰, 어불도서 주민 범죄피해 예방활동

해남경찰서(서장 송세호)는 지난 1일 송지면 어불도를 방문해 어르신 및 주민들 대상 안전사고 위험요소 발굴과 주민불안요소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 범죄피해를 분석해 보이스피싱, 학대, 고독사 등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송세호 해남경찰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자체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



/해남=박필용 기자

동신대 교수·기업 대표, 건축공학과 발전기금 기부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들과 지역 기업 대표가 학과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릴레이 기부에 동참해 화제다.

4일 동신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대학 중앙도서관 2층 부속실 소회의실에서 ‘건축공학과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동신대 최일 총장과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건축공학과 손승광·김순철·이상준 교수, 동신대 건축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흥설비(주)이규조 대표, 이 대표의 기부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세한기업 최영준 대표가 참석했다.

건축공학과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3명의 교수와 이 대표가 각각 1천만원, 최 대표가 500만원, 총 4천5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 대표는 “제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베풀어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회사를 운영한 지 22년이 됐는데 설비, 건축, 소방 분야 인재들이 성장해 회사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래 인재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자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한 교수들은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학생들이 용기를 갖고 세상을 넓게 보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동문 선배들이 릴레이 기부에 동참해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동신대 건축공학과는 최근 2년간 35명의 재학생을 건축기사·건축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시켰으며, 지난해에는 6명의 건축사 자격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동수 기자



목포시, 유달경기장 부지 기증 故김영배씨 표창

목포시는 지난 1일 제59회 목포 시민의 날 기념사에서 1971년 목포종합공설운동장(현 유달경기장) 건립 부지를 기증해 목포시 체육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고(故) 김영배 남해개발(주) 전 대표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1921년 진도에서 출생한 고 김영배씨는 전남도에 다목적용 헬리콥터를 기증(1970년 9월)한 데 이어, 당시 종합공설운동장 건설을 위해 부지 4만6천500평을 목포시에 기증하는 등 지역 발전에 앞장섰다.

또 지역 기업인 36명과 함께 유달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총당하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특히 김영배씨는 1986년 제68회 전국제전 목

포 개최를 계기로 정부와 전남도비 지원을 받아 현재의 유달경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은 장본인이다.

김영배씨의 자녀인 김태진 ㈜신태진 대표는 부친에 대한 표창 추서 감사와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취지에서 이날 목포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김태진 대표를 대신해 강형식 ㈜신태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태진 대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재능과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며 지역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창출하는데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